

근대문헌 통합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 요구 및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er Needs and Perceptions for an Integrated Online Service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이고은 (Go-Eun Lee)*** 최예은 (Yea Eun Choi)***
이유진 (Yu-Jin Lee)**** 김경민 (Gyeong Min Kim)****
이지연 (Jee Yeon Lee)*****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근대문헌의 서비스 현황과 이용자 수요를 분석하여 근대문헌 통합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외 근대문헌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근대문헌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619명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는 디지털 원문 접근성 향상, 다양한 검색 기능, 자료 연결, 교육 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디지털 기술 접목 등에 대한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특히 향후 이용 의도에는 교육적 유용성과 기술적 편의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대문헌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검색 UI 개선, 메타데이터 표준화, AI 기반 기능 도입,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근대문헌 통합 온라인 서비스 설계 및 정책 개발에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ategic direction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online service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related services and user need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he operational status of modern literature servic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as examined. Based on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users who have experience accessing modern literature, collecting data from a total of 619 respondents. The analysis revealed high user demand for digital full-text access, advanced search functions, resource linkage, educational programs, expert support, and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In particular, perceived educational usefulness and technological convenience significantly influenced users' future use intentions. To establish a user-centered integrated service, strategies such as improving the search UI, standardizing metadata, incorporating AI-based features, and building inter-institutional collaboration frameworks are essential.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sights that can inform the design and policy development of future integrated online services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키워드: 근대문헌,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요구, 서비스 개발, 도서관 서비스
modern literature, online service, user needs, service development, library services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3093597).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goni3530@naver.com)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sandy021330@gmail.com)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lyj1791@naver.com)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gmk9913@yonsei.ac.kr)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lee01@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25년 5월 22일 ■ 최초심사일자 : 2025년 6월 9일 ■ 게재확정일자 : 2025년 6월 13일
■ 정보관리학회지, 42(2), 177-203,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2.177>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서비스와 정보 획득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도서관을 포함하여 자료를 물리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고문서 등 자료의 디지털화는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개화기부터 해방기까지의 근대 인쇄 출판물인 근대문헌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패션, 역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대문헌 디지털화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높다. 또한 다양한 검색 기능과 주제별 큐레이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비율도 증대되고 있다(홍종욱 외, 2025). 하지만 근대문헌 디지털화 작업은 과거에 간행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디지털화 범위와 속도가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에 비해 매우 더딘 편이다(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24). 특히 국내 근대문헌 디지털화는 개별 도서관이나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인력, 자원 등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근대문헌의 디지털화 비율이 매우 낮고, 자료가 특정 기관에 집중적으로 소장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여러 도서관이나 기관에 산재해 있어 이용자가 자료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인 고문헌은 망설 및 혼란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고

문헌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김승우, 2015;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하지만 근대문헌은 고문헌에 비해 일부 특성화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사서를 포함한 해당 기관의 정보전문가들은 근대문헌 관리 및 전문지식이 미흡한 경향을 보인다(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22).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근대문헌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자료로서 현대 사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결점이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근대문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자료 관리 환경의 개선을 통해 근대문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근대문헌의 학술적·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도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근대문헌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방안 제안이나 디지털 아카이브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곽승진 외, 2018; 홍종욱 외, 2025)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근대문헌의 통합 온라인 서비스 방향성과 구성요소를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문헌 이용자 중심의 근대문헌 통합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 이용행태, 서비스 활용,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가 인식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및 유용성과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이용 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질문 1. 근대문헌 이용자의 근대문헌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는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근대문헌 이용자는 근대문헌 서비스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가?
- 연구질문 3. 이용자의 근대문헌 활용 만족도와 향후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근대문헌에 대한 문헌과 사례를 조사하고, 근대문헌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문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새로운 지식정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근대문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산재된 근대문헌의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 방향을 이해하고, 근대문헌의 학술적,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대문헌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행태, 정보요구,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용 의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량적 연구 방법과 정성적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근대문헌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면서 주요 개념과 그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외 주요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근대문헌 서비스 제공 사례를 조사하여 유형화했다. 특히 국외 근대문헌 관리 기관의 경우, 웹 검색 및 사서 문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대문헌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요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타 기관에서 소장하는 근대문헌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이다. 설문조사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웹설문 링크가 포함된 알림창을 띠워 최대한 많은 근대문헌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근대문헌 이용자의 이용 목적, 이용 방식, 이용 빈도, 이용 자료 유형, 서비스 만족도, 향후 이용 의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8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근대문헌 개념 및 시기

근대문헌에 대한 개념은 학계나 실무에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공존하여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정의나 이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근대

문헌의 시대적 경계는 고문헌 범주 내에서 다소 모호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고문헌의 기준은 『한국목록규칙』(제4판)에 따라 1910년 이전에 간행된 자료이지만, 점차 일제강점기 자료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일부 고문헌 소장기관에서 1910년 이후 간행된 자료도 고문헌으로 소장하는 추세이다. 일각에서는 고문헌의 시기를 1910년까지가 아닌 1945년까지로 확대하고, 고문헌 내에서 “근대고문헌”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옥영정, 2021). 국내 고문헌 소장기관의 근대문헌 관련 내규와 관리 현황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부 기관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문헌을 “근대문헌”이라는 개념 아래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기관에서는 대체로 “근대 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납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근대문헌 또는 준 고서(準古書)로 간주함을 파악하였다(유춘동, 오영식, 2021). 이처럼 근대문헌이 중요한 기록 문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범주 설정과 별도의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근대문헌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도서관에서는 근대문헌을 개별 자료 유형으로 설정하여 서비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근대문헌의 독자적인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곽승진 외, 2018).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근대고문헌의 개념 및 기준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22).

기존 연구에서 근대문헌의 시기적 구분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대체로 정치·사회적 변혁

기애 따른 문서 형태 및 내용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갑오개혁(1894년), 한일병합(1910년), 3·1운동(1919년), 해방(1945년) 등이 시기 구분의 주요 기준점으로 제시된다(국사편찬위원회, 2020). 대표적으로 조연현(1985)은 일련의 정치·사회적 사건에 따라 문학도 창가, 신소설, 신체시, 순수문학, 현대문학 등으로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하였다고 보고, 한국 근대문학 시기를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설정하였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근대적인 인쇄 기술과 출판문화가 도입되면서 한글을 사용한 서적과 잡지의 발행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근대문학자료유산 가이드’에서는 한국 근대문학 개념을 규정하는 요소로 “언어, 제도, 사상”의 세 가지 측면과 “근대적 인쇄출판과 근대문학의 뚜렷한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였다(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이어서 근대문헌 생산 시기의 시작점을 1894년 계일의 『천로역정』 번역과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 출간으로 설정하고 1945년 해방기를 종료점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근대문헌을 위한 OCR 성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국어 맞춤법 변천에 따라 근대문헌을 구분했는데 1895-1912년(1단 순한글), 1913-1921년(1단 혼용), 1922-1930년(2단 순한글), 1931-1945년(2단 혼용)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윤경애 외, 2025). 문학사의 최근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시기 구분의 기준점으로 하여 ‘신문’과 ‘철도’를 근대의 산물로 보고, 근대의 시작을 1890년(신문, 철도 등장)으로, 마지막을 1990년(개인용 컴퓨터 대중화)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이용욱, 2023). 이러한 접근은 근대문헌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시대적 범주를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문학 자료에 국한된 것이며, 모든 유형의 근대문헌을 포괄하는 기준은 아니다.

근현대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한 다른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대 구분을 폭넓게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 아카이브' 경우, 1876년 개항부터 2020년대 현대까지의 시대별 구분을 통해 근대사와 현대사를 아우르며, 잡지, 라디오, 영화, 화폐 등의 근현대 자료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은 1897년 대한제국부터 1955년 대한민국까지의 고신문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디지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 기관의 자료 특성과 서비스 목표에 따라 시대 구분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근대문헌의 시대적 구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이용자의 정보 획득 목적과 자료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근대문헌은 단순한 시기 구분에 의존하기보다 문서의 형태, 내용, 출판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대문헌의 특징과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근대문헌 서비스 개발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근대문헌의 개념을 1910년 한일병합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시기에 발행된 문헌 중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근대문헌은 근대 시기의 사회·문화 전반을

현재에 전달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로서 학술적, 유산적 가치가 높다. 최근 근대문헌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관과 도서관에서는 근대문헌을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유춘동, 오영식, 2021). 근대문헌의 디지털화는 일부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기관 간의 연계 및 통합 서비스 역시 활발하지 않다.

국내 근대문헌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도서관, 기업, 재단 등에서 개별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의 범위와 형식이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원문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 텍스트로만 제공하거나 이미지로만 제공하는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원문 없이 목차, 핵심어, 메타데이터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홍종욱 외, 2025). 이는 근대문헌 데이터의 비표준화 문제로 이어지며 타 기관과의 연계와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가 활발한 고문헌에 비해 근대문헌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지 스캔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헌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원문 이미지와 함께 원문 텍스트, 번역, 해제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지만, 근대문헌은 스캔된 이미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 검색이 어려워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윤경애 외, 2025).

이와 더불어 근대문헌 자료가 원문 이미지 형태로 산발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어 대중 접근성과 연구 활용도가 낮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일관된 디지털화와 표준화된 지침을 바탕으로 원문 텍스트 중심의 근대문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원문 이미지, 전사본, 현대어 표기 변환본”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체계를 마련하여 산재된 근대문헌을 통합 및 연계해야 함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 및 원문 비교 뷰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근대문헌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도 강조되었다(정슬아, 홍승혜, 2025).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근대문헌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서비스는 근대문헌의 학술적 활용과 공공적 접근을 저해한다. 이에 근대문헌의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해 산재된 근대문헌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근대문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근대문헌이 지닌 학술적, 유산적 가치를 보존 및 확산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의 확대, 데이터의 표준화, 기관 간 연계 체계 마련 등이 필수적이다.

2.3 근대문헌 서비스 현황

국내에서 근대문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서비스 특징과 제공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 총 50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헌 관련 서비스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조사된 서비스는 1) 자료 운영 지침, 2) 온라인 자료 검색 및 열람, 3) 컬렉션 및 아카이빙, 4) 메타데이터 구축, 5) 타 기관 연계 및 협력의 다섯 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문헌 이용 활성화와 통합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방향성에 관한 근거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용자 조사에 반영하였다. 국내 서비스 기관의 조사 범위는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서비스 기관 조사 범위

구분	기관명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기록원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대학도서관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울곡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기타 기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뮤지엄 한미, 아카이브8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2.3.1 자료 운영지침

일반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등 기록 및 유물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자관의 문현 개발과 관리를 위한 자료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표 2〉 참고). 자료 운영지침은 운영·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주를 정의하고 유형별 관리 지침을 상세히 규정한다. 일부 기관은 고문현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내규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침을 통해 고문현과 근대문현을 구분하고, 근대문현에 대한 자체적인 정의를 밝히고 있다. 단국대학교는 '1910년 이후부터 1959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유일본 또는 희귀본 도서'를 '준고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개화기 이후 한국 전쟁기 이전에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 / 한국전쟁기 이전에 국외에서 간행된 한국 관련 자료'를 '신서 귀중본'으로 분류하여 수집·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근대문현'이라는 명칭 대신 각 기관이 제시하는 별도

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근대 시기의 자료를 고문현과 구별된 독립적인 관리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자료 운영지침에 기술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개발지침에서 특수범주 자료의 한 항목으로 고문현을 구분하여, 그 유형과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도서관과 박물관은 대학도서관과 달리 국내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지침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만, 주로 수집 자료의 유형과 수집 절차에 대하여 밝히고 있을 뿐 근대문현 또는 해당 시기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선정과 운영에 이르는 총체적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국내 박물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집 정책을 바탕으로 자료 구입 및 소장 경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대학도서관은 전반적으로 자료 간행 시기를 고려한 자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

〈표 2〉 기관별 고문현·근대문현 자료 운영지침

구분	대학 기관명	설명
대학 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명학고문현시스템' 운영 •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현도서관 운영지침(2020. 1. 16. 제정)」
	동국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서실 운영지침」
	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현자료실 자료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현 수증·수탁 관리 세칙」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관리 세칙」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단국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현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
국립 도서관	연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현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지침」 특수범주자료
	국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내 '자료수집정책'
국립 박물관	법원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
	서울역사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집 정책
	국립고궁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고궁박물관의 예규집(2023. 6. 21.)

으며, 근대문헌을 독립적인 수집·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도서관과 기록 및 유물 관리 기관은 자료 운영에 있어 시대적 구분을 적용하기보다 자료의 유형과 관리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근대문헌에 대한 개별적인 운영지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2 온라인 자료 검색 및 열람

조사 결과, 근대문헌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검색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렉토리(목록)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온라인 검색 서비스는 소장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원문 DB를 통해 디지털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장자료 검색 시 디렉토리 검색, 제한 및 상세 검색, 주제 및 키워드 검색 등의 방식이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제한 및 상세 검색을 통해 시기와 자료 유형을 설정하여 근대 시기 문헌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관에서는 근대문헌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고문헌' 또는 '고서'와 같은 유형 내에서 검색하거나 자료의 출판 및 간행 시기를 고려하여 검색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 근대 사료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근대문헌 검색 및 열람 서비스로, 근대문헌을 역사적 사건, 인물·단체, 출처, 문서 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제별 근대문헌 목록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 및 상세 검색, 시소러스 검색 등 다양한 자료 검색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제별 검색 시 특정 역사적 사건(민족운동·사회운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연계하여 구체적인 근대문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세 검색의 경우 유의어 확장과 이체자 적용이 가능하여 근대문헌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용자의 자료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헌의 특성상 한자어 입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검색 시스템에서 다국어 입력기를 통해 한글 고어, 일본어, 유니코드 한자 등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디지털 원문 이미지에 대하여 매우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한다. 두 기관은 특정 자료를 검색한 후 '온라인 이용 가능' 옵션을 통해 원문 이미지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뷰어 프로그램 없이 원문 이미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소장자료를 디지털 이미지화하여 높은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2.3.3 컬렉션 및 아카이빙

컬렉션 및 아카이빙 서비스는 특정 주제나 시대, 사건, 인물 등의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고 구조화하여, 이용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보 제공 서비스다. 컬렉션 및 아카이빙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법원도서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기관은 특정 주제 및 시대 별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자료 목록, 관련 정보, 원문 이미지 등을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코리안메모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등 다양한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서지정보뿐만 아니라 소장기관 정보, 원문 이미지, 관련 정보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경상 국립대학교 도서관은 고문헌도서관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의 GNU COLLECTION을 통해 근대문헌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춘추문고 희귀본’ 컬렉션은 경상국립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근대 시기의 희귀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1800년대부터 1970년까지 10년 단위로 구분된 페이지를 구성하여 해당하는 연도의 자료 목록을 제공한다. 또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 특정 자료를 조회할 경우 소장 위치,대출 상태 등의 소장 정보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또한 디지털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기관으로, 고문헌 컬렉션을 통해 ‘일제강점기 도서’, ‘개화기 도서’, ‘한국 근대문학 자료’, ‘딱지본’ 등의 근대 시기 자료를 주제별로 구성하고 있다. 각

컬렉션은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자료 목록과 함께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특정 자료의 서지 정보와 원문 이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의 경우 ‘근대 자료 산책’이라는 온라인 테마 컬렉션을 통해 대표적인 근대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7개의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근대문헌의 원문 이미지와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자료 활용을 돋는다.

2.3.4 메타데이터 구축

근대문헌을 관리하고 디지털화한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국내 도서관 및 서비스 기관들은,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자료 검색 시 각 자료의 메타데이터 항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관별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기관은 공통적인 항목 외에 자체적인 특수 항목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요 근대문헌 서비스 기관의 메타데이터 구축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근대문헌 서비스 기관의 메타데이터 항목

구분	기관명	설명
대학 도서관	(공통)	자료유형,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처, 형태사항, 청구기호, 충서사항, 일반주기, 내용주기, 분류기호, 언어, MARC, 등록번호, 디지털원문 등
	서울대학교 규장각	원서명, 현대어서명, 청구기호, 편저자(한자), 편저자(한글), 판본사항, 간행지, 간행자, 간행연도, 책권수, 광곽, 판심, 책크기, 표제지 내제지, 서, 발, 권수, 권말, 장서기, 내사기, 간기, 자료소개, 인기, '사부분류', 기타, M/F번호 등
국립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표제,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
	국회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발행사항, 청구기호, 자료실(자료 위치), 형태사항, 제어번호, 주기사항, 원문 제공 여부, 미리보기
	법원도서관	자료유형, 분류기호, 논문/서명, 저자, 판사항, 발생사항, 형태사항, ISBN
국립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서명, 제목,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시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은 모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메타데이터 표준인 'MARC'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료 검색 서비스를 통해 메타데이터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의 'MARC 보기' 기능을 통해 메타데이터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물관, 기념관, 기록관 등의 기관은 수집 자료와 유물 관리에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시대', '재질', '크기' 등 기본적인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고궁박물관은 상세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페이지에서는 왕실 관련 도서의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서지사항, 해제, 원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 세분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고문헌과 근대문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표 4〉 참고).

이처럼 기관별로 구축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또한 다소 통일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5 타 기관 연계 및 협력

근대문헌은 국내외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그 양과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요 기관은 문헌 수집 및 자료 공유, 업무협약, 전문인력 구축, 공동연구, 교육 지원의 네트워크화 등 기관 간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및 온나루 통합검색 시스템을 토대로 타 기관과의 연계 검색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디지털 아카이빙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산재한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외 기관과의 협정 및 자료 교환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류, 정리, 등록하고 있으며 국내 기관과 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자료 수집 보존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 운영, 지역 향토사와 전문연구자 공유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의 남명학고문현시스템은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외에서 한국의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은 한국학 서가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 근대문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문고와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은 국내의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과 다수의 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프랑스 BULAC 도서관 역시 한국 서가 서비스를 통해 한국 자료에 대한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등, 한국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문 서비스와 기관 간의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 및 국립도서관과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으며, 이때 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

〈표 4〉 대학도서관의 근대문현 메타데이터 항목

대학명	자료유형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청구기호	총서사항	일반주기	내용주기	분류기호	언어	MARC	등록번호	디지털원문	기타 (공통항목이 아닌 항목)
강남대	○	○	○		○	○	○					○	○			언어부호 Control Number
건국대	○	○	○		○	○	○					○	○			
경기대	○	○	○	○	○	○	○				○	○	○			이용제한사항
경상 국립대	○	○	○		○	○	○	○	○							
경희대	○	○	○	○	○	○	○	○	○	○	○	○	○			
계명대	○	○	○	○	○	○	○	○	○	○	○	○	○			
고려대	○	○	○	○	○	○	○	○	○	○		○	○	○		기타표제
국민대	○	○	○		○	○	○						○	○		
단국대	○	○	○	○	○	○	○	○	○	○	○	○	○	○	○	
대구 가톨릭대	○	○	○	○	○	○	○	○	○	○	○	○	○	○		
동국대	○	○	○		○	○	○			○	○	○	○	○		표지표제
동덕여대	○	○	○	○	○	○	○	○	○			○	○			다양한 서명, 개인 저자, 웹 자원 정보, 키워드
서강대	○	○	○		○	○	○	○	○	○	○	○	○			
서울대 규장각		○	○		○	○	○						○			현대어서명, 편저자, 판본사항, 간행지, 간행자, 광과, 판심, 장서기, 내사기, 간기 등
서울대	○	○	○	○	○	○	○	○	○	○		○	○			발행연도, 주기사항, 컬렉션경로, 출처
성균관대	○	○	○		○	○	○	○				○	○			서지주기 주제명
숙명여대	○	○	○	○	○	○	○	○	○	○	○	○	○			비통제주제어
숭실대	○	○	○		○	○	○	○				○	○			
국립안동대	○	○	○		○	○	○	○	○	○		○	○			
연세대	○	○	○		○	○	○	○	○	○	○	○	○			
영남대	○	○	○	○	○	○	○	○	○	○	○	○	○			
용인대	○	○	○		○	○	○					○	○			KDC, 키워드, 가격, Control Number
울산대		○	○		○	○	○					○				표제, 기타표제, 발행처, 발행일, 형태, 출처, 컬렉션경로
원광대		○	○		○	○						○	○			출판사항
이화여대	○	○	○		○	○	○			○	○	○	○			주제명, 개인명
장로회 신학대		○	○		○	○	○					○				출판사항, 총서명, 부출개인
전남대	○	○	○	○	○	○	○	○	○	○	○	○	○			통일서명, 주제명
전북대	○	○	○		○	○	○	○	○	○	○	○	○			
전주대	○	○	○	○	○	○	○		○			○				키워드
조선대	○	○	○		○	○	○	○		○	○	○	○			원서명, 원본주기
충남대	○	○	○	○	○	○	○	○	○		○	○	○			일반주제명
충북대	○	○	○		○	○	○	○				○	○			
한양대	○	○	○		○	○	○	○				○	○			

인 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근대문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도서관, 박물관, 기타 기관을 중심으로 근대문헌 서비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서비스 기관의 경우 근대문헌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한 근대문헌을 통합하는 서비스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근대문헌을 고문헌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 지침이 부족하여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시대별, 유형별, 주제별 검색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디렉토리 검색 기능에서 '지류' 또는 '문헌'을 선택하거나, 상세 검색을 통해 자료 유형과 간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이용자의 자료 접근이 번거로우며 근대문헌만이 정리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자료수집 및 운영지침을 통해 근대문헌의 개념을 명시하며 특화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원문 제공에 있어 여전히 대부분의 서비스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내 열람만 가능하거나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이용자를 제한하고, 일부 소장자료만을 이미지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원문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적인 자료 반출과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대문헌 원문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관별 메타데이터 형식이 달라 일반 소장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검색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기관의 자료 입력, 관리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근대문헌에 특화된 통합서비스를 통해 근대문헌의 사료적

특징을 고려한 원문 이미지화 작업을 확장하고 통일된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축함으로써 전문가와 일반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서비스 기관은 여전히 국내 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헌만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 기관이 소장한 근대문헌 자료의 수집·관리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근대문헌의 사료적 가치가 조명되면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한국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해외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3. 분석결과

3.1 인구통계학적 사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요구와 이용행태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타 기관에서 근대문헌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9명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근대문헌 이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236명 (38.1%), 여성 383명(61.9%)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182명(29.4%), 40대가 172명(27.8%)으로 주를 이루었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인 응답자가 264명(88.7%)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근대문헌 이용자 대부분은 인문·사회 계열 소속이었으며, 이는 총 391명(63.2%)

〈표 5〉 근대문현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구 분	세부 항목	응답 수(명)	비율(%)
성별	남성	236	38.1
	여성	383	61.9
연령	10대	7	1.1
	20대	95	15.3
	30대	182	29.4
	40대	172	27.8
	50대	98	15.8
	60대 이상	65	10.5
학력	고등학교 졸업	38	6.1
	전문대학 졸업	307	3.6
	대학교 졸업	242	49.6
	대학원 졸업 이상	22	39.1
	기타	10	1.6
전공	교육계열	50	8.1
	예체능계열	34	5.5
	이공계열	102	16.5
	인문·사회계열	391	63.2
	의학계열	33	5.3
	기타	9	1.5
직업	학생	65	10.5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91	14.7
	전문연구자	53	8.6
	사무직	158	25.5
	사서	76	12.3
	학예연구원(기록관, 박물관 등)	20	3.2
	일반시민	121	19.5
	기타	35	5.7
업무경력	2년 미만	92	14.9
	2년 이상 - 5년 미만	93	15.0
	5년 이상 - 10년 미만	131	21.2
	10년 이상 - 15년 미만	88	14.2
	15년 이상 - 20년 미만	67	10.8
	20년 이상 - 25년 미만	55	8.9
	25년 이상	82	13.2
	기타	11	1.8
총인원 수		619	

에 해당했다. 직업은 사무직(158명, 25.5%)과 일반 시민(121명, 19.5%)의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업무 경력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근대문헌 이용자 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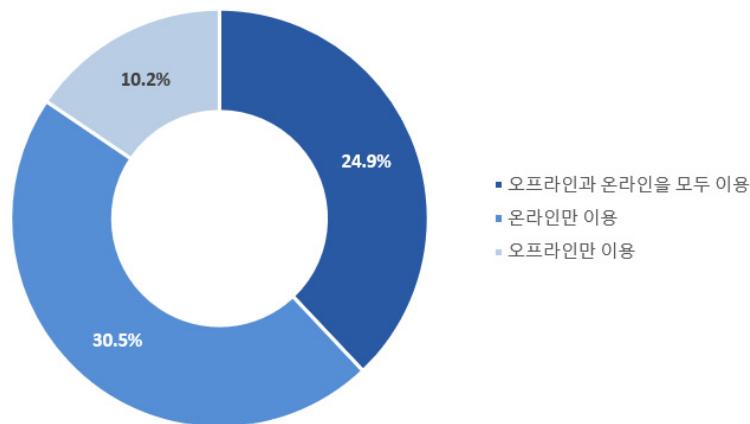
3.2.1 이용 경험

1) 이용 방법 및 이용 빈도

근대문헌을 업무나 교육·연구 등에서 활용하는 이용자의 경험과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로 근대문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했으며, 이용 경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했다(〈그림 1〉 참고). 설문조사 응답자 619명 중 30.5%가 온라인만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이용자는 24.9%, 오프라인만 이용해 본 이용자는 10.2%로 나타났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용자들의 이용 빈도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온라인 이용자 중에서는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일주일에 1번 이상' 26.2%, '분기



〈그림 1〉 근대문헌의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경험

〈표 6〉 근대문헌 이용 빈도

설문문항	온라인(%)	오프라인(%)
거의 매일 이용	7.0	1.80
일주일에 1번 이상	26.2	10.6
한 달에 1번 이상	26.5	27.6
분기별로 1번 이상	21.9	19.8
1년에 1번 이상	12.0	23.0
거의 이용하지 않음	5.5	15.2
기타	0.9	1.8

별로 1번 이상' 21.9%, '1년에 1번 이상' 12.0%, '거의 매일 이용' 7.0%, '거의 이용하지 않음' 5.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오프라인 이용자 의 경우,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 비율이 26.5%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년에 1번 이상' 23.0%, '분기별로 1번 이상' 19.8%, '거의 이용하지 않음' 15.2%, '일주일에 1번 이상' 10.6%, '거의 매일 이용' 1.8% 순이었다.

2) 이용 목적

이용자들이 근대문헌 자료를 이용하는 목적 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최대 3개까 지 중복 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표 7> 참고). 조사 결과, '역사 자료에 대한 관심'(27.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 으로 '학술 연구'(23.1%), '업무 수행'(18.8%),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14.3%), '프로그램 참여'(11.1%), '정책 정보 수집'(4.7%) 순으로 근대문헌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 이용자 대부분은 역사 자료에 대한 높은 관심이 근대문헌 이용의 주된 동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근대문헌이 교육자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도 관심받는 분야임을 시사한다.

<표 7> 근대문헌 이용 목적

설문 문항	답변 비율(%)
역사 자료에 대한 관심	27.6
학술 연구	23.1
업무 수행	18.8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	14.3
전시, 견학,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11.1
정책 정보 수집	4.7
기타	0.4

3) 이용 자료 유형

근대문헌을 획득하거나 활용할 때 주로 이용 하는 자료 유형을 파악하고자, 중복 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표 8> 참고).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서적'(30.3%)을 가장 많이 이용 했으며, 다음으로 근대 시기의 '신문이나 잡지'(22.4%)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 논문 및 연구 보고서'(14%), '사진 및 그림'(13.4%), '정부 발행 문서'(11.1%), '지도 및 도면'(4.7%), '포스터 및 광고물'(2.6%), '편지 및 일지'(1.2%)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획득·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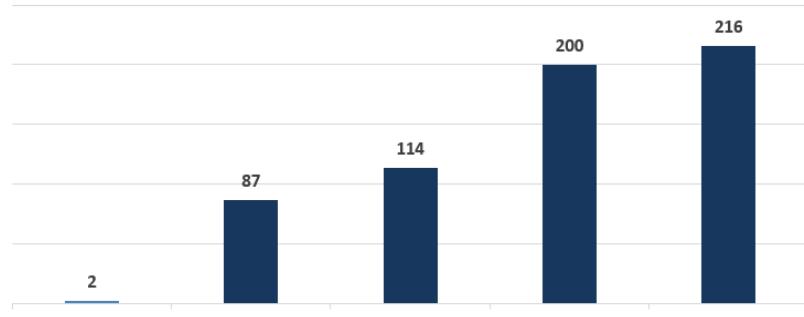
<표 8> 근대문헌 자료 유형

설문 문항	답변 비율(%)
서적	30.3
신문 및 잡지	22.4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14.0
사진 및 그림	13.4
정부 발행 문서	11.1
지도 및 도면	4.7
포스터 및 광고물	2.6
편지 및 일지	1.2
기타	0.3

3.2.2 서비스 이용행태

1) 이용 정보자원

근대문헌 소장기관의 자료 검색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 연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선호하는 서비스 방식을 조사하였다(<그림 2> 참고). 그 결과, 이용자의 92.6% 가 검색한 결과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자료 연결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료 연결 서비스



〈그림 2〉 자료 연결 서비스 선호 방식

제공 시 관련 소장자료 목록(216명)과 전문 해제 또는 번역본(200명)을 함께 제공받기를 원했고, 논문 및 보고서(114명), 관련 주제에 대한 디지털 컬렉션(87명) 서비스 또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대문헌 활용 기관

근대문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근대문헌 서비스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

용자 중 27.3%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고).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 활용에 있어서 가장 주요 정보원임을 알 수 있었다. 뒤이어 공공도서관(11.9%), 국사편찬위원회(10.8%), DBpia(10.3%), 한국학술정보(9.4%), 웹 검색(9.1%), 한국학중앙연구원(7.8%), KERIS(5.8%), 대학도서관(4.1%), KISTI(1.2%), KISS(0.9%) 순으로 이용자들이 근대문헌을 활용했다. 이는

〈표 9〉 근대문헌 이용 기관

기관 유형	종복 답변 수(명)	비율(%)
국립중앙도서관	431	27.3
공공도서관	189	11.9
국사편찬위원회	170	10.8
DBpia	162	10.3
한국학술정보	148	9.4
웹 검색(Google, Naver 등)	144	9.1
한국학중앙연구원	123	7.8
KERIS(RISS 등)	91	5.8
대학도서관	64	4.1
KISTI(NDSL 등)	19	1.2
KISS	15	0.9
JSTOR	8	0.5
기타	13	0.8

국립중앙도서관과 더불어 공공도서관과 DBpia, 학술정보 등의 디지털 플랫폼이 근대문헌과 관련한 업무, 연구 및 학업 수행에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학도서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4.1%) 대학도서관의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 고려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등의 대학도서관도 이용했다. 서울대학교는 근대문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가 주제별, 언어별, 시대별, 유형별, 문고별 자료 검색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근대문헌 검색이 용이하고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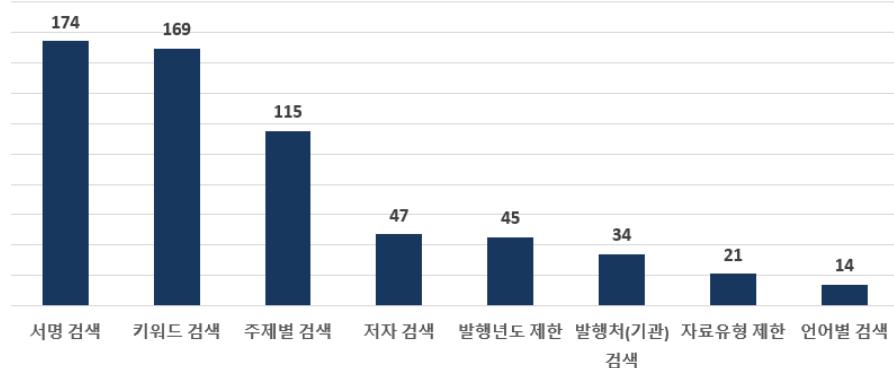
3) 검색 방식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검색 방식은 '서명 검색'과 '키워드 검색'으로, 각각 174명과 169명이 해당 검색 방식을 통해 근대문헌을 검색한다고 응답했다(〈그림 3〉 참고). 이외에도 주제를 검색하는 방식(115명), 저자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식, 발행 연도, 발행처, 자료 유형, 언어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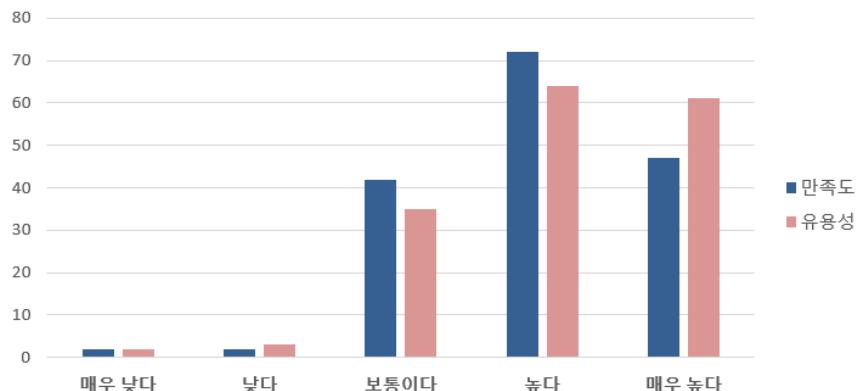
등 다양한 검색 설정 기능을 혼용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조사 결과, 현재 근대문헌 검색을 위한 웹페이지 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이 검색을 수행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근대문헌의 디지털화와 메타데이터 통합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 근대문헌 프로그램

근대문헌 프로그램의 범위는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도서관이나 학술기관 등이 주최하는 근대문헌 관련 학술대회, 교육, 전시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 전시'와 한국고문헌연구회 세미나 등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도왔다. 근대문헌 관련 학술대회나 교육, 전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41%로,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4〉 참고). 하지만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41%)을 대상으로 참여 만족도와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추가로 조사한 결



〈그림 3〉 정보 검색 시 선호하는 방식



〈그림 4〉 근대문헌 관련 학술대회, 교육, 전시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유용성

과, 과반수가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학술대회, 교육, 전시 프로그램이 연구, 학습,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근대문헌 관련 학술대회, 교육, 전시 등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음에도 참여자의 만족도와 유용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대문헌의 필요성과 가치를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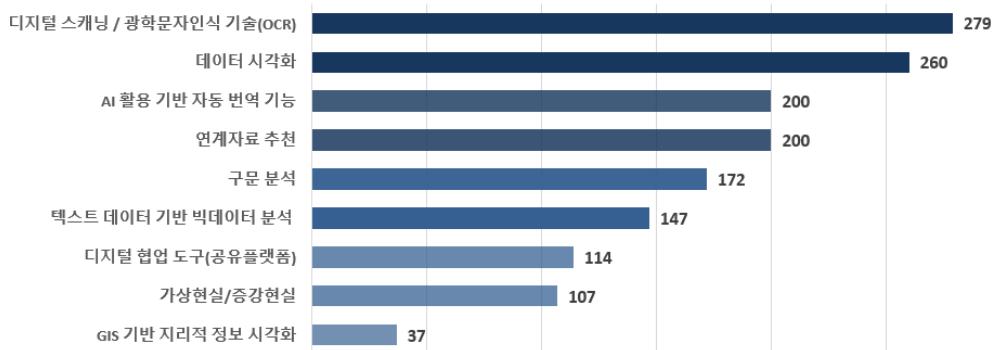
3.2.3 근대문헌 디지털 정보서비스

근대문헌은 1945년 이전에 발행된 문헌으로, 근대문헌을 소장하는 기관들은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헌의 노후화는 자료 보존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들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오래된 문헌과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많은 이용자가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문헌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디지털 기술 접목의 유용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설정했

으며, 그 결과 '매우 유용하다' 290건, '유용하다' 239건 등 총 619명 중 529명이 근대문헌의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함을 확인했다.

문헌과 사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근대문헌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목록을 도출하여, 이용자들에게 근대문헌을 획득하거나 활용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기술을 3개까지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조사 결과, 디지털 스캐닝 및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인 OCR 기술에 대한 요구 응답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대문헌 데이터의 시각화(260건), AI를 활용한 번역 기능과 연계자료 추천 기능(200건)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스캐닝 및 OCR 기술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근대문헌의 텍스트 인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지원하므로 이용자들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근대문헌을 단순히 디지털화된 자료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활용 범위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5〉 참고). 즉,



〈그림 5〉 필요한 근대문헌 디지털 기술 및 기능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 시각화할 수 있는 데 이터 자원으로서의 근대문헌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한문 번역 기능의 응답 비율 또한 높았다. 현재 근대문헌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해제나 번역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문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자동화된 번역 기능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문헌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이 정보접근성과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향후 서비스 개발에 있어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기술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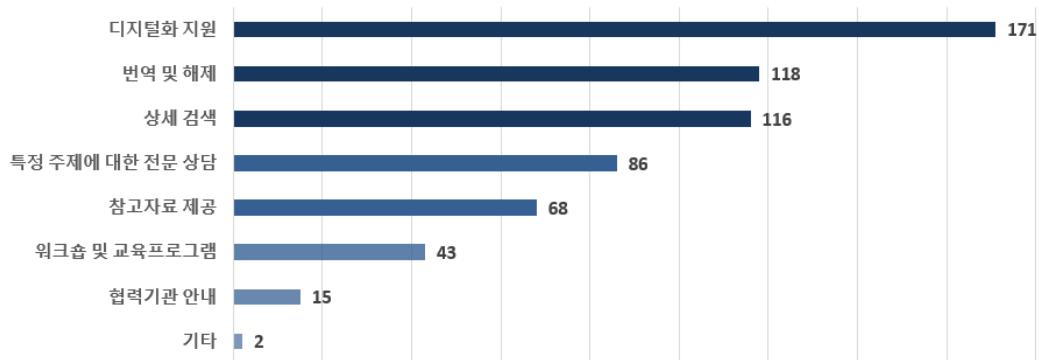
3.2.4 전문인력

근대문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에게 있어 전문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디지털화 지원'(171명)으로, 앞선 '디지털 기술 적용'에서 나타난 근대문헌 디지털화에 대한 이용자의 희망 사항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었다(〈그림 6〉 참고). 또한 이용자들은 근대문헌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해석하기 어려운 근대문헌의 번역, 해제 서비스(118명)를 제공해주기를 희망했고, 상세 검색(116명)을 통한 검색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 상담(86명)을 제공받기를 희망했으며, 관련 참고 자료의 검색 및 제공 서비스(68명), 근대문헌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 서비스(43명)를 원했다. 이를 통해 근대문헌 서비스 이용자들은 전문 학예연구사가 자료수집과 제공의 역할을 넘어 근대문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서는 전문직원과의 상담,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및 번역, 해제 서비스, 검색 방법 교육, 디지털 아카이빙 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표 10〉 참고). 이는 자료의 디지털화, 번역 및 해제 제공, 검색 확대 및 이용 교육, 주제 전문 상담 등이 현재 근대문헌 서비스에서 가장 요구되는 요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전문인력 지원이 제공하는 도움 및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75.6%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앞서 제시한 근대문헌 자료의 디지털화 지원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원



〈그림 6〉 전문인력이 필요한 근대문헌 서비스

〈표 10〉 전문인력이 필요한 근대문헌 서비스

- 전문직원과의 상담(*)
- 이해하기 쉬운 설명, 해석, 번역 및 해제(*)
- 검색: 방법, 정확성 향상, 교육, 자연어 검색(*)
- 디지털 아카이빙(*)
- AI 서비스 활용 정보접근, OCR 텍스트
- 관련 자료 안내
- 근대문헌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전시 활성화
- 디지털 복원
- 연관자료 연계
- 도면화 서비스 제공
- 도서 및 자료, 정보 추천
- 원문서비스 확대
- 국내 자료의 해외 발굴 사례 제공
- 홍보
- 연구지원 서비스

(*) 가장 많이 응답한 서비스

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았다. 이는 근대문헌 자료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전문인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이용자들이

근대문헌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5 타 기관 문헌 이용 필요성

근대문헌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타 기관의 근대문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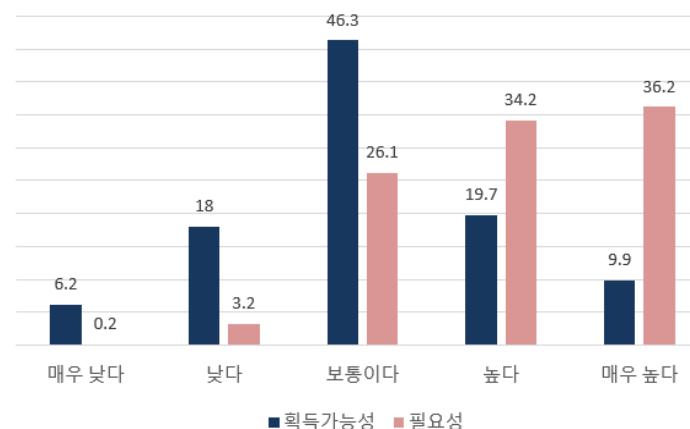
이 편리한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했다(〈그림 7〉 참고). 타 기관과의 근대문현 이용 용이성에 대해서는 46.3%가 '보통이다'라고 답변했으나, 근대문현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36.2%, '필요하다'가 34.2%로 이용자 대부분이 타 기관의 근대문현에 대한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용자들은 타 기관의 자료를 획득하는 경로와 이에 대한 자료 접근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근대문현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 기관의 협력 확대를 필수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수집된 응답을 보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근대문현 서비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연관자료 연계'가 강조됐다. 대부분의 근대문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사서 업무, 자료 관리 및 열람, 상호대차, 원문 복사, 전산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근대문현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근대문현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기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24). 이러한 인력구조는 근대문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응답에서도 나타났듯, 이용자들은 근대문현 간의 연계성과 통합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업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타 기관 간의 원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근대문현 자료의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근대문현 통합 온라인 서비스 관련 요인 간 관계 분석

근대문현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이용자가 인식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및 유용성과 근대문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이용 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요인은 관련 자료와 연결하는 서비스의 필요성, 타 기관에 소장된 근대문현 자료 접근의 필요성, 직원 지원의 유



〈그림 7〉 타 기관의 근대문현 이용 용이성 및 접근 필요성

용성,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의 유용성, 디지털 기술의 접목 유용성으로 구성했다. 이 요인이 근대문현 서비스 만족도와 향후 온라인 통합서비스 이용 의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근대문현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모든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1$). 특히, 디지털 기술 접목의 유용성과 향후 이용 의도($r = .593$, $p < .01$) 요인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 기반 기능(AI 추천, OCR, 시각화 등)의 도입이 통합서비스 이용 의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자료 연결의 필요성 또한 이용 의도($r = .523$) 및 서비스 만족도($r = .319$)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자료 간의 맥락적 연결 제공이 이용자의 정보 탐색 경험과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인력의 지원 유용성은 서비스 만족도($r = .492$)와 이용 의도($r = .520$)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해제, 번역, 큐레이션 등과 같은 인적

서비스의 제공이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재이용 의향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된다. 또한,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의 유용성은 서비스 만족도($r = .600$)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근대문현 활용의 맥락을 넓히는 것이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을 시사했다. 타 기관 자료 이용 필요성은 이용 의도($r = .497$)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러 기관의 분산된 자료를 통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근대문현 서비스 만족도와 향후 근대문현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 요인과 만족도의 관계는 $F(10.715) = 26.440$,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고 모형의 설명력은 $R^2 = .456$, 수정된 $R^2 = .438$ 로, 만족도의 약 43.8%가 이들 다섯 요인으로 설명되었다(〈표 12〉 참조). 독립변수 중 '교육 프로그램 유용성'($\beta = .435$, $p < .001$)과 '전문인력 지원의 필요성'($\beta = .227$, $p < .01$)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료 연결 필요성', '타 기관 자료 필

〈표 11〉 상관관계 분석 결과

	관련자료 연결 필요성	타 기관 자료 필요성	직원 지원의 유용성	교육 프로그램 유용성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	근대문현 서비스 만족도	이용 의도
관련 자료 연결 필요성	1	.452**	.513**	.443**	.503**	.319**	.523**
타 기관 자료 필요성	.452**	1	.474**	.358**	.428**	.281**	.497**
직원 지원의 필요성	.513**	.474**	1	.415**	.543**	.492**	.520**
교육 프로그램 유용성	.443**	.358**	.415**	1	.397**	.600**	.502**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	.503**	.428**	.543**	.397**	1	.463**	.593**
근대문현 서비스 만족도	.319**	.281**	.492**	.600**	.463**	1	.467**
이용 의도	.523**	.497**	.520**	.502**	.593**	.467**	1

〈표 12〉 근대문현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i>t</i>
		β	표준오차		
만족도	상수	.443	.343		1.292
	관련 자료 연결 필요성	-.034	.091	-.031	-.375
	타 기관 자료 필요성	.088	.072	.089	1.219
	직원 지원의 필요성	.225	.079	.227	2.856**
	교육 프로그램 유용성	.422	.066	.435	6.380***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	.145	.080	.134	1.821

* $p < .05$, ** $p < .01$, *** $p < .001$

* $R^2 = .456$

*Adjusted $R^2 = .438$

요성',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은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근대문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과 교육·전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근대문현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동일한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표 13〉 참조). 그 결과, 통계적으로 회귀모형은 $F(13,246) = 46.551$,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R^2 = .596$, 수정된 $R^2 = .538$ 이었다. '타 기관 자료 필요성'(β

= .282, $p < .001$), '자료 연결 필요성'($\beta = .233$, $p < .01$), '디지털 기술 접목 필요성'($\beta = .194$, $p < .01$), '교육 프로그램 유용성'($\beta = .164$, $p < .01$), '전문인력 지원 유용성'($\beta = .136$,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대문현 통합 온라인 서비스가 단위도서관 중심의 디지털화에서 나아가 타 기관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통합 및 검색,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지원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표 13〉 근대문현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i>t</i>
		β	표준오차		
이용의도	상수	.077	.288		.269
	관련 자료 연결 필요성	.247	.076	.233	3.240**
	타 기관 자료 필요성	.269	.060	.282	4.460***
	직원 지원의 필요성	.132	.066	.136	1.991*
	교육 프로그램 유용성	.155	.055	.164	2.798**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	.205	.067	.194	3.066**

* $p < .05$, ** $p < .01$, *** $p < .001$

* $R^2 = .596$

*Adjusted $R^2 = .583$

한다. 즉, 네트워크 기반의 연계성을 통한 정보 자원 접근의 용이성이 높고 디지털 기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용자일수록 통합 서비스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근대문헌은 봉건 체제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문학적 발전이 크게 이루어진 시기에 발행된 우리나라의 역사적 유산이자 가치를 지닌 기초 자료이다. 과거부터 축적된 방대한 문헌은 현재 국내외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으나, 디지털화되지 않은 문헌의 비율이 높고 근대문헌의 관리와 활용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기관의 보존 환경과 정책에 따라 귀중한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문헌의 통합검색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문학관, 대학도서관, 역사관 등의 근대문헌 소장 및 운영 현황, 서비스 등을 망라하여 조사하였으며, 한국의 근대문헌이 소장된 국외 기관을 조사하여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뿐 아니라 다른 국내 기관도 근대문헌만을 특화하여 별도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으며, 고문헌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일부 근대문헌을 제공하는 기관을 살펴본 결과, 주체별, 유형별, 시대별, 인물별 등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제공하고 타 기관의 자료를 연계하여 디지털 원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또한 기관마다 메타데이터 형식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된 기술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기관에서도 근대문헌 자료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국외에 소장된 한국 근대문헌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개발 필요성에 주목하여 근대문헌 이용자들의 근대문헌 이용행태와 요구, 기술 접목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총 619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근대문헌 이용자는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며, 주로 소장자료 및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가 불편하여 다양한 검색 접근점이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디지털 원문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디지털 원문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타 기관의 자료 접근 확대, 전문 해제 서비스 제공, 디지털 스캐닝, OCR, 데이터 시각화 등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대문헌 통합 온라인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요인 중 근대문헌 만족도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전문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향후 이용 의도에는 타 기관 자료 필요성, 자료 연결 필요성,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 교육 프로그램 유용성, 전문인력 지원 필요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근대문헌 서비스의 한계를 진단한 결

과, 총체적이고 망라적인 근대문헌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첫째, 근대문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술적인 연구와 대중 적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통합 서비스 구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검색의 접근성 확대와 근대문헌 통합검색 서비스를 위한 체계구축,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대문헌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홈페 이지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검색 UI, 필터링 기능,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지원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셋째, 거버넌스 체계구축 측면에서는 근대문헌의 활용과 공유, 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관들과의 연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수립, 협력 네트워크,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인력 인 사서를 재교육하여 주제 사서 및 학예사와의 상담 서비스, 전문 해제 및 번역 서비스, 디지털화 구축 확대 등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병

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챗봇 서비스, 통계 및 분석 서비스, API 개발, AI 기반 검색 기능, 보안 및 접근 제어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근대문헌의 학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재조명하였으며, 일반 시민부터 연구자 까지 모두 근대문헌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대문헌 이용자의 이용 환경과 맥락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향후 근대문헌 이용자 대상으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근대문헌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원대학교교산학협력단 (2022).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곽승진, 노영희, 정대근 (2018). 이용자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47-75. <http://doi.org/10.16981/kliss.49.1.201803.47>
- 국사편찬위원회 (2020). 한국 고문서 입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승우 (2015). 고문헌 원문 서비스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대학교교산학협력단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 연세대학교교산학협력단 (2024).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국립중앙도

서관.

- 옥영정 (2021).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 *서지학연구*, 87, 5-29.
<https://doi.org/10.17258/jib.2021..87.5>
- 유춘동, 오영식 (2021). 시대 변화에 따른 근대문헌 범주의 재설정 문제와 방안. *서지학연구*, 87, 51-65.
<https://doi.org/10.17258/jib.2021..87.51>
- 윤경애, 이철우, 김영철, 이현주, 김유정, 김인환 (2025). 한국 근대 문헌 연구를 위한 OCR 성능 분석. *인문연구*, 110, 53-78.
- 이용욱 (2023). 한국 근대문학의 시기 구분에 대한 일고찰: 근대와 탈근대의 기술 전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9, 37-68.
- 정슬아, 홍승혜 (2025). 디지털 인문학 관점에서 본 근대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가능성. *인문과 학연구*, 51, 25-58.
- 조연현 (1985).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성문각.
-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한국 고문헌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홍종욱, 장문석, 류준필 (2025). 한국 근대문헌 디지털 아카이브의 설계: 『진단학보』를 중심으로. *인문 연구*, 110, 79-122.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eongju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2018). A Study on the Mid-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Management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National Library of Korea.
- Cho, Yeon Hyun (1985).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eoul: Sungmungak.
- Chung, Seul A & Hong, Seung Hye (2025). Building and exploring the potential of Korean modern literary databases from a digital humanities perspective. *Studies in the Humanities*, 51, 25-58.
- Hong, Jong Wook, Jang, Moon Seok, & Ryu, Jun Pil (2025). Design of digital archive of modern Korean bibliography: Focusing on the Chin Tan Hakpo.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110, 79-122.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Group (2022). Mid-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Modern Publications. National Library of Korea.
- Kim, Seung Woo (2015). A Study on Digital Service of Old Books and Its Improvement Strateg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wak, Seung Jin, Noh, Young Hee, & Jeong, Dae Keun (2018).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modern literature service based on user awareness surve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47-75. <https://doi.org/10.16981/kliss.49.1.201803.47>
- Lee, Yong Wook (2023). A study on the periodizations in Korean modern literature: Focusing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modern and postmodern times.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89, 37-68.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20). *An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Gwache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Ok, Young Jung (2021).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and standards of Korean rare book.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7, 5-29. <https://doi.org/10.17258/jib.2021..87.5>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Group (2014). *A Survey Report on the Current Holdings of Modern Korean literary Archives*. National Library of Korea.
- Yonsei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Center (2024).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n Integrated Online Service for Modern Korean Documents*. National Library of Korea.
- Yoo, Choon Dong & Oh, Young Shik (2021). Redefinition and conservation of the modern publication according to changing period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7, 51-65. <https://doi.org/10.17258/jib.2021..87.51>
- Youn, Kyung Ae, Lee, Chul Woo, Kim, Young Chul, Lee, Hyune Ju, Kim, Yu Jeong, & Kim, In Hwan (2025). OCR performance analysis for research on modern Korean document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110, 53-78.

